

An Exploration of the Applicability of Community Cultural Resources to Character Education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unkyoung Kim*

Dongguk University Gyeongju Campus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community cultural resources to character education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is study set up two research questions such as, first, 'What are the results of utilizing the community cultural resources for character education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second, 'What are the contents of early childhood character education activities based on community cultural resources presented b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research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after organizing total 349 cultural heritages on the basis of data related to cultural resources in Gyeongju region, the cultural resources suitable fo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ere selected together with an expert group. After conducting a learners' needs survey by using total 25 types of selected cultural resources as the first data, the cultural resources that would be used for this study were finally selected by reflecting the survey results together with five people of an expert group. As a result, this study selected total five types of cultural resources such as Bulguksa Temple, Seokguram Grotto, Choi's Old House of Gyodong in Gyeongju, Hwarang Village, and Daereungwon Photo Studio. This study composed the character education activities by utilizing the finally-selected five types of cultural resources, received the verification of the validity from an expert group, and then provided total five sessions of activities to 29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In the results of activities, the cultural resources in Gyeongju region were valuable to be utilized for character education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is study suggests to develop some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utilizing more various cultural resources in the future.

Key words :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Character Education, Community, Gyeongju, Cultural Resources

* **Corresponding to** Eunkyoung Kim (Professo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Gyeongju Campus) E-mail : zuoqu@hanmail.ne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자원 활용 가능성 탐색

김은경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유아교육과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교육에 있어 지역사회 문화자원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자원 활용 결과는 어떠한가’, 둘째, ‘예비유아교사가 제시한 지역사회 문화자원 기반 유아인성교육 활동 내용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주지역 문화자원 관련 자료를 토대로 총 349개의 문화재를 정리한 후 전문가 집단과 함께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문화자원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문화자원은 총 25종이며, 이를 1차 자료로 하여 학습자 요구도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전문가집단 5인과 함께 본 연구에 활용할 문화자원을 최종 선별하였다. 그 결과 불국사, 석굴암, 경주 교동 최씨 고택, 화랑마을, 대릉원 사진관 총 5종이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5종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인성교육 활동을 구성한 후 전문가 집단에게 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예비유아교사 29명을 대상으로 총 5회기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활동결과 경주지역 문화자원은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교육에 있어 교육적 활용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좀 더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주제어 : 예비유아교사, 인성교육, 지역사회, 경주, 문화자원

I. 서 론

전통사회에서는 일상생활 안에서 가족과 마을 어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산업화로 인해 가족과 마을의 형태 및 기능에 변화가 오면서 가정과 학교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주체가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현장이 학생중심으로 운영되며 교사의 권위가 예전과 같지 않을 뿐 더러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핵가족화, 개인주의, 경제적 어려움, 과도한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들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폭력행동으로 표출되어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고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미성숙한 단계인 영·유아들이 학대 피해자로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 관련 자료(보건복지부, 2020)에 따르면 2020년 집계된 아동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42,251건으로 이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총 38,929건이며 실제 아동학대사례는 30,905건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친부(43.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모(35.4%)가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교사와 관련하여서는 보육교사(2.1%)가 유치원교사(0.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1.8%), 아이돌보미(0.1) 등의 대리양육자들에게서도 아동학대가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로는 피해 아동의 가정 내 발생이(84.9%)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유형으로는 중박학대(48.3%)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학대(28.3%), 신체학대(12.3%), 방임(8.9%), 성학대(2.2%)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동(자녀)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부모 및 교사가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폭력을 목격하거나 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성장 후 폭력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기의 피학대 경험은 성장 후 청소년 비행이나 반사회 행동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성인기의 범죄 행동, 데이트 폭력, 배우자 학대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유영재, 김나리, 2019: 72) 물론 폭력 피해자가 많은 노력을 통해 학대로 인해 받은 상처를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 기억과 감정은 평생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타인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인성교육이 요구된다. 동시에 유아교사 및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교육 강화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해 당연하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며 인간됨의 가치이자 교사가 되어 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안지령, 2021: 185-187), 바람직한 인성은 유아교사의 중요한 자질로 인식(서현, 임지윤, 박미자, 2013: 60-63)하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직 인성의 요소

는 ‘존중’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으며 유아인성교육의 지도방법은 ‘전 영역을 통한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김순환, 남옥선, 박선희, 2014: 382-386)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지령(2021: 182)은 유아인성발달에 미치는 유아교사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사로 입문하기 이전부터 바람직한 인성을 내면화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교육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와 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학습자의 흥미를 이끄는 것과 함께 인성교육 자료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떠올리게 되었다.

경주지역은 문화재의 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주의 문화자원 중 상당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지역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랜 세월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주지역의 문화재는 총 349개인데, 이 중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불국사 다보탑, 불국사 삼층석탑, 불국사 연화교 및 칠보교 등 총 31종이고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불국사 사리탑, 경주서악동 마애여래 삼존입상 등 총 100여 종이며, 사적은 경주 포석정지, 황룡사지, 불국사 등 77종에 이른다. 천연기념물로는 경주 오류리 등나무, 월성 육통리 회화나무 등 5종이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로는 경주 교동법주, 명주짜기, 전통장, 누비장 총 4종이 있다. 국가 민속 문화재로는 경주 양동마을 송첨종택, 경주 최부자택, 경주 양동마을 낙선당 고택 등 총 15종이 있으며, 국가등록 문화재는 경주 구 서경사(西慶寺), 경주 우안양수장 2종이 있다. 그 밖에 시·도 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42종, 무형문화재 5종, 기념물 18종, 민속문화재 3종, 문화재자료 47종이 있다(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www.heritage.go.kr/ 2021.1.23. 인출). 그밖에 여러 왕릉과 새로 조성된 화랑마을, 경주세계엑스포공원, 감포의 송대말등대 및 체험 전시관, 연동마을 해녀 박물관, 주상절리, 보문정, 천도교 성지 용담정, 남산 등 다양한 문화자원이 있다.

여러 문화자원 중 상당수에서는 불교와 유교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찬란한 문화유산이 탄생하기까지 인고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문화자원에 접근한다면 충분히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교육에 있어 지역사회 문화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교육은 예비유아교사의 바른 인성함양에 목적을 두는 것과 함께 향후 유아의 바른 인성을 길러 줄 수 있는 역량함양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자원 활용 결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예비유아교사가 제시한 지역사회 문화자원 기반 유아인성교육 활동 내용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 문화자원

경주의 문화자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해도 총 349종에 이르며 그 외에도 새로 조성된 화랑마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 및 주상절리와 같은 수려한 자연경관 등 다양한 문화자원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 적용한 지역사회 문화자원은 김대성설화와 불국사·석굴암, 경주교동 최씨고택, 화랑마을, 대릉원 사진관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김대성설화와 불국사·석굴암

김대성설화는 『삼국유사』 「효선」 제 9 “대성(大城) 효이세부모(孝二世父母) 신문왕대(神文王代)”에 기록되어 있다. 설화의 내용은 크게 전생과 현생으로 나누어 전개되고 있는데, 전생의 삶은 김대성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품팔이로 얻은 재물을 보시한 후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이며, 현생의 삶은 김문량의 집에 태어나는 시점부터 불국사 창건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때까지이다. 이야기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김대성의 전생, 환생과정, 불국사와 석굴암 창건의 계기가 된 곰 사냥 이야기, 전생과 현생의 부모를 위한 불국사와 석굴암 창건, 석불조각에 있어 천신의 도움을 받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설화의 주인공인 김대성은 신라성덕왕대에 재상(중시)을 지낸 김문량의 아들로 태어났다. 김대성 역시 자신의 아버지처럼 경덕왕 4년(745)부터 8년(749)까지 재상(중시)직에 있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경덕왕 10년(751)에 김대성은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하여 석굴암 창건을 시작하였으나, 그 내면에는 신라인의 신앙과 조국을 지키려는 강인한 민족정신의 발로였다고(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encykorea.aks.ac.kr/ 2022.02.17. 인출)보고 있다.

불국사는 신라인이 그리던 불국토를 표현한 것으로 경내는 석단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석단의 위는 부처님의 나라이고 석단 아래는 중생의 세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와 칠보교는 부처님의 나라와 범부의 세계를 이어주는, 즉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사바세계로 내려오는 계단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불국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아사녀와 아사달의 이야기가 깃든 석가탑(무영탑), 과거불인 다보여래가 석가여래의 『법화경』 설법을 증명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다보탑이 있다. 그밖에 불국사 경내로 가는 천왕문 앞에는 사바세계에서 불국정토로 향하는 길을 묘사한 해탈교가 있다. 이렇듯 신라인의 신앙과 철학이 깃든 불국사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encykorea.aks.ac.kr/ 2022.02.17. 인출; 경주 문화관광 참조 www.gyeongju.go.kr/tour/

2022.02.17 인출).

석굴암은 건립 당시에는 석불사라 불리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 창건을 시작하였으나 나라를 수호하려는 국찰로서 경영되었다. 석굴암의 구조는 입구인 직사각형의 전실(前室)과 원형의 주실(主室)이 복도 역할을 하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360여개의 넓직한 돌로 원형 주실의 천장을 교묘하게 구축하여 세계에 유례가 없는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경주 문화관광 참조 www.gyeongju.go.kr/tour/ 2022. 02.17 인출). 석굴암 내부의 구조는 본존불을 중심으로 상단 중앙에 십일면관음보살상과 아난다, 라후라 등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원형으로 모셔져 있다(세계문화유산 석굴암 참조. www.seokguram.org/ 2022.02.17 인출).

2) 경주 교동 최씨 고택: 경주 최부자집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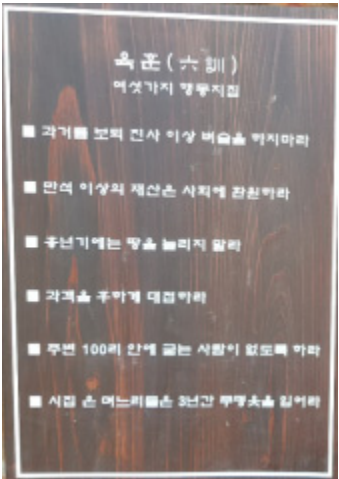
경주 교동 최씨 고택(경주 최부자택)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조선시대 만석꾼 최부자 관련 주택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제 27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씨 고택 보다는 이 집에 살던 최씨 일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현이 더 많이 알려져 있다. youtube에 ‘경주 최부자’를 검색하면 “KBS 한국사전-12대 400년 부자의 비밀, 경주 최부자: KBS역사저널”, “경주 최부자집의 비밀이 밝혀진다.: 포항 MBC”, “영남의 어른 경주 최부자집 이야기 최염 주손편: 안동 MBC플러스”, “덕으로 쌓은 나누는 부-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최 최창호: 포항 MBC”, “경주 최부자집에서 쏟아진 독립운동 자료: 포항MBC뉴스”, “200억을...독립운동 헌신 최부자집 신화, 진짜였다: SBS 뉴스”, “여의도 땅 3/4을 독립운동 담보로... 경주 최부자집의 나라 사랑: KBS 뉴스” 등 많은 자료에서 최씨 일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조명하고 있다. 이처럼 최부자집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과 함께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경주 최부자집의 가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마라, 둘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셋째 흥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넷째 과객을 후하게 대하라. 다섯째 주변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여섯째 시집은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이런 엄격한 가훈을 바탕으로 하여 일 년에 삼천석의 농사를 지으면 1천석은 자가 소비, 1천석은 지나는 사람들(과객), 1천석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신상범 2018: 242).

경주 최부자택은 빈민구제 외에도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다. 11대손 최현식 선생은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12대 최준 선생은 선대의 유산을 독립운동에 바쳤으며, 해방 후 대구대학과 계림대학을 설립하여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하였다. 최완 선생은 대동청년단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는데,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 투옥되었으며 이후 고문후유증으로 인해 3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최순 선생은 독립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백산무역의 상무로 재직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자금

을 전하는 중임을 수행하였는데 해방 후 친일 경찰의 사주로 목숨을 잃었다(6쪽에 제시한 관련 동영상 자료 참조).

이상과 같이 경주 최부자택은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였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사회·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 관련 미디어 자료는 많은 반면 학술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2018년 최부자택 가문에서 대량의 자료가 발굴되어(권기중, 2018: 237) 좀 더 깊이 있는 연구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된다.

최부자택 육훈	최완 선생의 생가
	

[그림 1] 관련 사진자료

[Figure 1] Related photo materials

3) 화랑마을

2018년에 개원한 경주시 소재 화랑마을은 종합청소년수련시설로 신라화랑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체험시설, 누구나 화랑이 될 수 있는 모두의 관광시설로 나누어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특히 전시관은 화랑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주제로 나누어 화랑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먼저 ‘화랑의 시대로 가다’에서는 신라의 역사를 화랑의 연대기로 재구성하여 건국부터 화랑의 활약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도의상마’에서는 화랑의 기원과 기본조직 및 유교의 기본바탕인 인·의·예·지·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를 영상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오산수’에서는 화랑의 수련내용과 전통놀이 체험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가악상열’에서는 신라의 삼현인 가야금, 거문고, 향비파 전시 및 음원 제공과 신라시대의 춤인 처용무를 키넥트 게임으로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경주화랑마을 <https://www.gyeongju.go.kr/hwarang/index.do> 참조 2021. 1.23 인출).

본 연구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자원으로 ‘화랑마을’을 선정한 이유는 화랑관련 문헌이나 애니메이션 외에도 학습자가 화랑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를 관찰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화랑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또한 현재 예비유아교사나 유아들은 미디어 매체나 현장관찰 및 체험에 익숙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4) 대릉원 사진관

대릉원 사진관은 경주지역 관광 명소인 황리단 길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진관이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문화자원으로서 근현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삼세(三世)와 연기(緣起)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진을 통해 변화해 가는 자신을 돌아보고 긍정적 삶의 자세와 미래를 계획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견해를 전문가 집단에게 밝힌 후 논의를 통해 본 활동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대릉원 사진관에 대한 자료가 미흡한 관계로 관련 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림 2] 대릉원 사진관
[Figure 2] Daereungwon Photo Studio

2.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교육

일반적으로 인성에 대한 개념은 유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상황이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1학년 초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교적 관점에서 인·의·예·지를 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의·예·지에 대한 개념정리나 실천방법에 대해

서는 분명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학습자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성에 대한 개념정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인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은 학습자에게 바른 인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사료된다. 일례로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1학년)들은 8가지 인성덕목을 제시하였을 때에 다양한 이야기와 상황들에서 인성덕목을 분석해 내었으며, 자신들의 언행을 스스로 분석하여 8가지 인성덕목 중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된 8가지 인성덕목은 예비유아교사 스스로 자신의 언행을 반성하고 교정하며 유아교사로서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인성교육진흥법(교육부, 2020 일부개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는 바람직한 유아교사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정규교육과정 및 비교과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유아교육현장에서도 유아기부터 바른 인성을 형성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인 2019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2020)에서는 2019개정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맞추어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 자료의 개발·보급을 통해 예비유아교사 및 유아교사의 유아 인성지도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조사 및 1차 자료정리

본 연구를 위해 먼저 “국가문화유산포털”, 『삼국유사』, 『한국구비문학대계』,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박물관”, “경주시청 문화·관광안내자료 e-book”)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정리한 결과, 경주지역 문화자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총 349종으로 나타났다. 이중 ‘인성교육에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문화자원 탐방 시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 할

것’,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자료가 풍부할 것’을 기준으로 하여 본 연구자와 경주지역 유아교육전문가 1인, 민속학자 1인, 총 3인이 자료를 다시 정리하였다. 본 연구자와 자료정리에 참여한 2인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료를 선별하였다. 자료정리에 참여한 3인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 문화자원은 불국사(석가탑, 다보탑, 연화교 포함), 석굴암, 화랑마을(화랑도, 풍류도), 경주박물관, 경주 교동 최 씨 고택, 2인의 의견이 일치한 문화자원은 황룡사 및 황룡사 역사문화관, 서출지, 첨성대, 계림, 한국대중음악박물관, 양동마을, 전통 명주전시관, 월정교, 대릉원, 천마총, 동궁과 월지, 대릉원 사진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 삼릉, 백률사, 포석정, 옥산서원, 문무대왕릉, 오릉, 성덕대왕 신종으로 나타나 자료정리에 참여한 전문가 2인과 협의하여 이들 문화자원 총 25종을 1차 자료로 사용하였다.

2. 학습자 요구도 조사

1차로 정리된 25종의 경주지역 문화자원을 학습자에게 제시한 후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기를 희망하는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불국사가 7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출지 50.0%, 대릉원 40.9%, 화랑마을 36.3%, 동궁과 월지·월정교·경주박물관·천마총 각 31.8%, 옥산서원·첨성대·황룡사 및 황룡사 역사문화관 각 27.2%, 석굴암·포석정이 각각 13.6%, 계림·삼릉·신라오릉 각 9.0%, 대릉원사진관·대중음악박물관·문무대왕릉·백률사·선덕대왕신종 각 4.5%, 전통명주전시관·양동마을·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경주교동 최씨고택을 선택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어 0.0%로 나타났다.

3. 지역사회 문화자원 선정

프로그램에 적용할 지역사회 문화자원의 최종선정을 위해 전문가 집단과 논의 과정을 거쳤다. 전문가 집단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 강의경력이 있는 5인으로 경주지역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높고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교육에 관심이 높은 현장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는 것과 함께 1차로 선정된 경주지역 문화자원과 학습자의 요구도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인성교육이 가능한 문화자원을 선정하도록 안내하였다. 문화자원 선정 시 유형의 문화자원 뿐 아니라 특정 문화자원과 관련된 설화 등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 집단 5인 중 3인 이상의 의견일치를 보인 문화자원은 불국사와 석굴암, 경주교동 최씨 고택, 화랑마을 총 4종이 선정되었다. 이 중 경주교동 최씨 고택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0%의 응답을 보였던 문화자원이지만, 전문가 집단 5인 모두 적극 추천한 문화자원이자 본 연구자 역시 인성교육에 있어 매우 가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본 연구자는 4종외에 대릉원 사진관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이는 사진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 볼 수 있으며 삼세(三世)와 연기(緣起)에 대한 이해를 도와 바른 인성의 실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자의 견해를 전문가 집단이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불국사, 석굴암, 경주 교동 최씨 고택, 화랑마을, 대릉원 사진관 총 5종이 선정되었다.

4. 활동내용 구성 및 타당도 검증

지역사회 문화자원을 활용한 인성교육활동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과 이러한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핵심역량(인성교육진흥법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237#P1> 2021. 1. 23 인출)을 반영하여 구성한 후, 유아교육과 교수 1인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경력 10년 이상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2인에게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5. 인성교육활동 적용

지역사회 문화자원을 활용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주시 소재 D대학의 유아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1학기에는 1학년, 2학기에는 2학년 수업에서 각 5회기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참관은 개별(조별)로 진행한 후 보고서 제출을 과제로 부여하였으며, 유아인성교육활용방안을 최종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교육에 있어 지역사회 문화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구성된 인성교육 활동내용과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 활동의 목적 및 목표

본 활동의 목적은 ‘연기론적 세계관을 통해 지혜와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문화자원을 통해 연기론적 세계관을 형성 한다. 둘째,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

며 소통하는 바른 인성의 교사상을 정립 한다. 셋째, 지역사회 문화자원을 유아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을 기른다.

2. 인성교육 활동내용

전술한 활동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한 인성교육은 총 5회기로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 인성교육 활동내용
<Table 1>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회기	주제	활동목표	활동내용	인성요소
1	본 활동 소개	불교문화의 사상적 기초에 대해 이해한다. 인성교육의 개념 및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연기법, 윤회, 보시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가치 및 실천덕목 신라시대 불교문화 이해	*8가지 인성 덕목
2	불국사와 석굴암 김대성설화	불국사와 석굴암에 나타난 인성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김대성설화를 통해 ‘효’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유아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불국사와 석굴암 창건설화(김대성 설화) 이해(관련 애니메이션, 동영상 활용) 및 인성요소 탐색 유아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한 토의	효 책임 협동
3	경주교동 최씨고택	불교적 인성에 기초하여 최부자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다. 유아교육적 활용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최부자택 이야기와 보시의 가치 자신이 행했던 보시에 대해 생각하고 그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유아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한 토의	존중 책임 배려
4	화랑마을	화랑도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화랑도에 나타난 인성요소를 이해하고 유아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나타난 화랑도관련 글 소개 화랑도의 특징과 가치 및 관련 인성요소 파악 유아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한 토의	8가지 인성 덕목
5	대릉원 사진관	연기와 삼세에 대해 이해한다. 연기에 기반 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유아교사상을 정립할 수 있다.	연기와 윤회 자신의 전생을 상상하기 연기와 윤회에 기초하여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바람직한 유아교사상 정립을 위한 자기반성과 토의	8가지 인성 덕목

* 8가지 인성덕목: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3. 교수-학습 방법

지역사회 문화자원을 활용한 인성교육 활동의 교수학습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학습의 원리로는 탐구학습의 원리, 통합의 원리, 생활중심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로 구성하였다.

둘째, 교수-학습과정은 관심 갖기, 탐구하기, 참여하기,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기 4단계로 구성하였다(이아름, 김낙홍, 2018: 58)

셋째, 교수방법은 학습자의 지역사회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수자의 강의가 선행되었으며, 학습자의 흥미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관련 동영상 활용과 현장탐방이 이루어졌다. 또한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학습한 내용은 자신을 비롯하여 주변의 상황들과 연계하여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실시하였으며, 2019개정 누리과정을 염두에 두고 유아인성교육측면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토의)을 진행하였다.

4. 평가

매 차시 진행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 및 토론(토의) 과정과 유아인성교육 활용방안 과제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준거는 활동내용에 대한 이해도, 참여도, 창의성을 중심으로 하였다.

5.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자원 활용 결과

1) 학습자 반응

본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지역사회 문화자원과 인성교육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이는 경주지역의 문화자원을 문화재로만 인식하고 감상 및 학습의 대상으로 여기는 교육적 환경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5회기의 활동을 마치며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문화자원과 인성교육의 연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작성한 글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유아교사가 인성덕목을 왜 가져야하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생각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인성덕목이 왜 중요한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아서 이를 어떻게 유아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유아들은 모방을 하니깐 내가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인성교육이라며 좁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하면서 직접 지역사회와도 연계해보고 창의적으로 생각

- 을 넓혀 봄으로써 교사로서 한 걸음 더 나아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인성교육이 문화재나 지역사회 자원에도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인성교육을 활용 해 많은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생략)
 - 불교문화재 속에서 유아들도 학습할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이 컸다...(중략) 한 문 화재 속에서도 제작 과정 속에서의 만들어진 설화, 그 속에서의 인성 등등 아이들의 눈높 이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생략)
 - 불교 문화재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한다면 문화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 장을 함께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게 다가왔다.
 - 지역사회와 문화재를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성교육만을 하는 것보 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해 알고 자신이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해 알아가면서 옛 선조들의 정신 등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선조들의 정신들을 직접 따 라해 보면서 더 효과적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생략).

서울형 유치과정	특정 지역의 문화재를 사용하여 활동계획안을 작성한 것과 특정 지역의 문화재와 인성 덕목을 연계시켜 활동계획안을 생각해 보는 활동이 새로웠고 인상 깊었습니다.
	-인성교육이 문화재나 지역사회 자원에도 비유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인성교육을 활용해 많은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유아와 관련된 많은 영상을 보며 인성교육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2. 불교문화재 속에서 유아들도 학습할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 컸다. 뿌리깊은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역사의 흐름을 이해해마지만 문화재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 불교유아 교육 수업을 통해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유아들의 경우에도 학습할 점이 무궁무진함을 느낄 수 있었 다. 한 문화재 속에서도 제작 과정 속에서의 만들어진 설화, 그 속에서의 인성 등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 게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이 학습한 내용으로 놀이로 연계하는 방 안도 고민해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유아교사의 역량을 쌓아가는데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한다.
	5-2) 처음 유아교육과에 지원했을 때는 나의 적성과 흥미에 잘 맞을 것 같다는 주변의 권유와 나의 선택으로 막연하게 예쁜 아이들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내용이 유치원 교육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았다. 불교 문화재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한다면 문화재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함 께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게 다가왔다.
	2. 지역사회와 문화재를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성교육만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해 알고 자신이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해 알아가면서 옛 선조들의 정신들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선조들의 정신들을 직접 따라해보면서 더 효과적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

[그림 3] 관련 자료

[Figure 3] References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본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 문화자원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활동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예비유아교사가 제시한 지역사회 문화자원 기반 유아인성교육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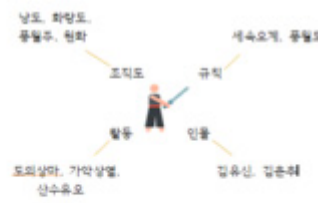
본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에 학습자들은 제시한 지역사회 문화자원에서 인성덕목 요소를 추출하는 것도 어려워하였다. 그러나 인성덕목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과 함께 제시한 문화자




주제 선정 이유

- 화랑도는 신라시대 인재양성과 등용을 목적으로 조직된 청소년 수련단체로 문, 무, 예를 겸비하였고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었다. 화랑은 책임, 배려, 효, 소통, 협동 등의 인성덕목을 갖춘 바람직한 리더상으로 조화로운 발달을 요구하는 21세기 인간상과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 활용을 위한 예상 주제망

1) 브레인스토밍 ('화랑') - 도의상마 - 가악상열 - 산수유오 - 세속오계(인성덕목과 연계) - 신라 - 낭도 - 풍월주 - 독서삼품과 - 풍월도 - 김유신 - 김춘추 - 원화	2) 유목화 <조직도> - 낭도, 화랑, 풍월주, 원화 <규칙> - 세속오계, 풍월도 <활동> - 도의상마, 가악상열, 산수유오 <관련 인물> - 김유신, 김춘추	3) 주제망 구성 
---	---	---

[그림 4] 관련자료

[Figure 4] References

원의 철학적 배경과 창조 과정을 상상하고 토론(토의)하는 시간들을 통해 문화자원과 인성덕목 요소를 자연스럽게 연계 짓게 되었으며 나아가 유아교육적 활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안하는 단계까지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관련 예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활동과정 중 예비유아교사들이 제시한 지역사회 문화자원 기반 유아인성교육 활동 내용은 김대성 설화를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하여 동화읽기 활동, 불국사의 상징적 의미를 활용한 부처님 나라 만들기 및 그리기와 노랫말(동시) 만들어 보기, 사진을 통해 유아 스스로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미래의 모습 그려 보기, 최부자택 애니메이션 시청 후 나눔 장터 놀이하기, 화랑을 소재로 프로젝트 활동하기를 제안하였으며, 이 활동들에는 인성요소를 반영하여 유아들에게 주지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이 중 화랑을 소재로 프로젝트 활동을 제안한 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화랑도는 신라시대 인재양성과 등용을 목적으로 조직된 청소년 수련단체로 문, 무, 예를 겸비하였고,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었다. 화랑은 책임, 배려, 효, 소통, 협동 등의 인성 덕목을 갖춘 바람직한 리더상으로 조화로운 발달을 요구하는 21세기 인간상과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은 지역사회 문화자원과 인성덕목을 연계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유아인성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불교 문화재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한다면 문화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함께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게 다가왔다’, ‘인성교육이 문화재나 지역사회 자원에도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인성교육을 활용해 많은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다’는 활동소감은 인성교육 자료의 다양성 확보와 우리문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교육에 있어 지역사회 문화자원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주지역 문화자원 중 불국사, 석굴암, 경주 교동 최씨 고택, 화랑마을, 대릉원 사진관 총 5종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인성교육 활동을 구성한 예비유아교사 29명을 대상으로 총 5회기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활동결과 경주지역 문화자원은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교육에 있어 교육적 활용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활동 초기 학생들은 지역사회 문화자원과 인성교육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인성덕목에 대한 개념 정리와 함께

지역사회 문화자원을 다양한 측면에서 소개하며 인성덕목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선정한 문화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정보 및 활용방안의 예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매 회기 마다 문화자원과 인성덕목의 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및 토의 시간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은 ‘불교 문화제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한다면 문화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함께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게 다가 왔다’, ‘지역사회와 문화재를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성교육만을 하는 것 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등의 활동소감을 밝혔다. 또한 유아교육적 활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제안하는 단계까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화랑을 소재로 프로젝트 활동을 제안한 학생들은 화랑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유아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인성교육과 연계시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학생들이 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자원 및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교육에 있어 지역사회 문화자원이 활용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좀 더 다양한 문화자원과 연계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Ahn, J. R. (2021). The Exploration of Personal Education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7), 181-192.
- 일연. 『삼국유사』 .
(Translated in English) Il-Yeon, *Samgug-Yusa*.
- Kim, S. H., Nam, O. S. & Park, S. H. (2014).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character education among student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three and four year colleges across the n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19(1), 363-391.
- Kwon, K. J. (2018). Family Composition and Servant Management of the Rich Chois Family of Gyeongju during the Latter Part of Joseon Dynasty - With a Focus on its Hogu Danja -*The Historical Journal*, 76, 125-157.
- LEE, A. R. & Kim, N. H. (2018).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arly childhood traditional cultural education program using community resourc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8(5), 49-79.
- Seo, H., Lim, J. Y. & Park, M. J. (2013).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Preliminary

- Childhood Teachers and Current Childhood Teachers on the Desirable Personality.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7, 41-71.
- Yoy, Y. G. & Kim, N. L.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abuse experiences in childhood and violent behavior in juvenile. *Korean Criminal Psychology Study*, 15(4), 69-86.
-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2020.08.11.)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Web log post]. Retrieved January 23, 2021, from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237#P1>.
-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2012). bulgusa, Seokguram, Kimdaeseong [Web log post]. Retrieved February 17, 2022, from <http://encykorea.aks.ac.kr/>.
- Gyeongju Cultural Tourism. (2019). cultural heritage and history [Web log post]. Retrieved January 23, 2021, from https://www.gyeongju.go.kr/tour/page.do?mnu_uid=2257&.
- Gyeongju National Museum. (2019). National treasure [Web log post]. Retrieved January 23, 2021, from <https://gyeongju.museum.go.kr/kor/>.
- Hanguk Gubi Munhak Daegye. (2008). bulgusa [Web log post]. Retrieved January 23, 2021, from <http://gubi.aks.ac.kr/web/TitleList.asp>.
- Hwarang Village. (2018). Hwarang Village [Web log post]. Retrieved January 23, 2021, From <https://www.gyeongju.go.kr/hwarang/index.do>.
- I-nuli. (2020.12.31). Baeumnuli, On-site support materials [Web log post]. Retrieved February 7, 2022, from https://i-nuri.go.kr/main/board/index.do?menu_idx=105&manage_idx=58&how_show=each.
- Moe & Mohw. (2020). 2019 Revised Nuri course [Web log post]. Retrieved January 23, 2021,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2&boardSeq=7941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1&opType=N>.
- Mohw. (2015). Child Abuse & Neglect Korea [Web log post]. Retrieved February 7, 2022, from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7078.
- National Cultural Heritage Porta. l(2000). Gyeongju Cultural Heritage [Web log post]. Retrieved January 23, 2021, From <https://www.heritage.go.kr/main/>.
- Silla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03). Cultural Heritage of Gyeongju [Web log post]. Retrieved January 23, 2021, from <http://www.kjsilla.re.kr/>.
- World heritage site Seokguram. (2018). structure and name [Web log post]. Retrieved February 17, 2022, from www.seokguram.org/.